

호반의 도시 춘천

200km

The 200km of the Lake City,
Chuncheon



글 | 柳 晔
(Ryu, Kwang)

건설기계기술사,
이수건설(주) 부장.
E-mail : kwangryu@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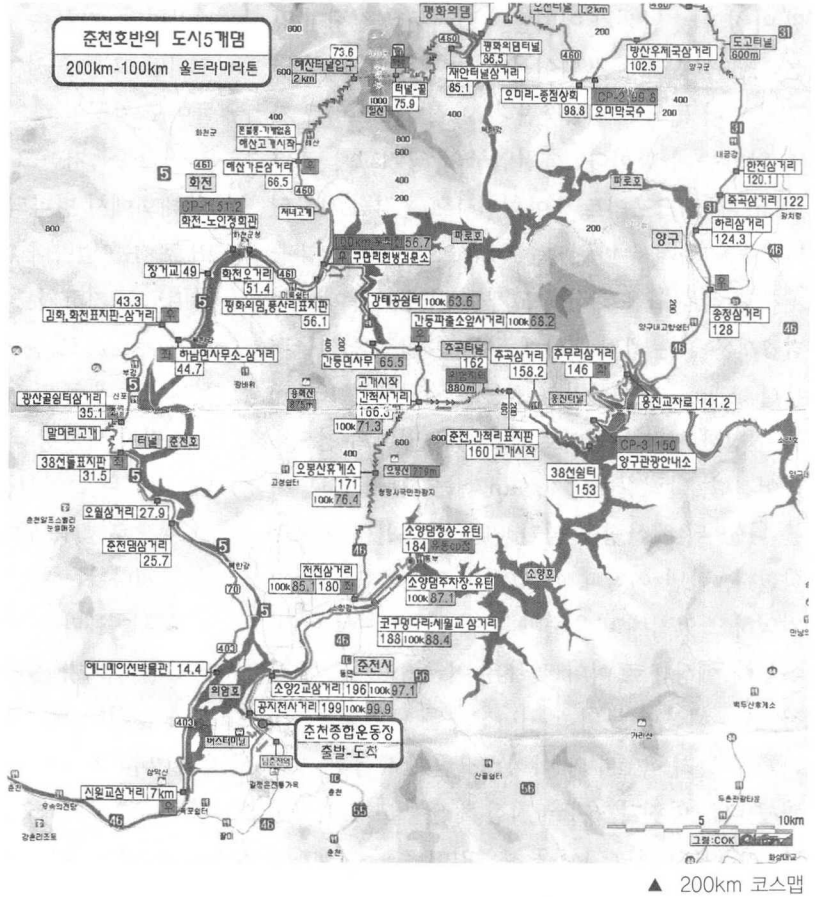
2000년 5월 23일 밤늦은 시간 춘천 종합운동장에는 긴장한 청년들이 작은 배낭을 메고 속속 모여들고 있었다. 각 지방에서 모인 건각들이지만 서로 격려하며 열심히 이는 체 인사를 나눈다. 이 밤중에 이 밤을 새가며 밤 새도록 달릴 울트라 맨 들인 것이다. 100km는 기본이고 200km 300km을 쉬지 않고 달리는 사람들... 초보자를 제외하고는 벌써 수많은 울트라 대회에서 한두 번 이상은 본 얼굴이고 오늘밤도 밤 새워 살갑게 뛰어야하며 또 몇 번을 앞서 거니 뒤서거니 하여야 할 얼굴들인가? 긴긴 여정의 100km 그리고 200km의 경기가 잠시 후면 출발 준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옹기종기 불빛에 모여 앉아 신발을 고쳐 신고 배낭끈을 조이고 앞뒤 안전등을 달고 모두가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나는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200km 대회에 출전을 하였다. 작년에는 몸과 마음이 지쳐 130km 지점에서 그만둔 악몽이 아직도 새롭기만 한데 과연 올해에는 완주 할

수가 있을까하는 두려운 마음이 먼저 앞섰다. 시간은 흘러 밤 12시 가까이 되었고 간단한 체조로 몸을 풀 후 모두가 출발선 상에 섰다. 드디어 출발이다. 이 밤을 새우고 또 다음 밤을 뜬 눈으로 새우고 난 다음에야 다시 밟을 이 출발점을 상상하며 천천히 한발 한발 움직여본다. 춘천 시내의 야경이 굽이쳐 돌아가는 달리미의 어깨에 쏟아져 내린다. 아름다운 야경에 묻혀 배낭 앞뒤에 달려있는 안전등은 그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금방 춘천 시내를 벗어났고 등에 매달린 깜박이 등이 튀어가는 반동에 유난히 출렁거리며 드디어 그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 의암댐을 굽어 돌아간다. 댐 위에서 환하게 불빛을 밝히는 가로등이 의암호에 길게 너울과 같이 물속에 출렁이고 주변의 삼각산은 물속에 드리어 깊은 잠을 청하고 있었다. 가끔은 잠들지 않은 큰 고기들의 몸짓이 강변의 정적을 깰 뿐이다. 낮이면 행락객으로 분주하였을 의암호 주변의 민물고기 전문점들도 하나같이 잠들어 있는 적막한 이 밤... 우리는 달리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200km을 말이다. 온 대지의 정기를 머금은 넓은 춘천호수와 자연의 혜택을 마음껏 즐기면서 질주하는 차량에 탄 기분으로 흥에 겨워 말이다. 모두들 힘이 넘친다. 앞서가는 불빛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나 또한 무리하지 않는다. 지금 달리고 있는 이 길은 춘천마라톤 풀코스 두 번의 경험이 있으며, 작년 200km에서 실패한 후 개인적으로 지나갔던 길이다. 새벽 4시경 춘천댐에 다다랐다. 여기서부터는 화천 쪽으로 올라가야하기에 산길로 접어들었다. 마침 서너로지는 하현달이 뛰어가는 거리에 따라 산마루에 걸렸다 벗겨졌다하고 있었다. 가히 높지 않은 산이라 작은 터널을 지나 금방 넘어갔고 날이 밝아오기 시작하였다. 새벽의 낮은 온도에 강변공기가 이슬이 되어 이마에 부딪힘을 쾌감으로 느끼면서도 안개

긴 아침의 낮 날씨가 어떠할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38선 분기점을 넘어서면서 서서히 다리의 근육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한다. 아직 채 50km도 가지 않았는데 말이다. 화천입구의 장거교를 지나 50km 제1체크포인트에 아침 6시 20분경 도착하였다. 주취 측에서 마련해준 국밥으로 아침을 대충 채우고 곧 다가올 해산령 고개를 넘기 위하여 주먹밥 2개를 얼른 챙겨 배낭에 넣은 후 발길을 서둘러 본다. 57km 지점 구만리 검문소 입구에서 100km을 신청한 사람은 곧바로 배후령을 넘어 춘천으로 들어간다. 갈림길에서 100km 뛰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눈 뒤 해산령을 넘기 위하여 화천댐 쪽으로 향한다. 작년 이맘 때 이 고개의 악몽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기에 마음준비를 단단히 하여야 한다. 아침에 예상대로 이미 햇살은 이글거리기를 시작하였다. 해산령 못미처 처너고개를 넘기 전 동네 가게에 들러 음료수와 아이스크림으로 몸과 마음의 준비를 다진다. 67km 지점 해산령 고개 시작이다. 지금부터 마냥 7km을 하염없이 걸어 올라가야 한다. 태양이 작렬하는 고개길 7km, 아무 생각 없이 걷고 또 걷는다. 걸어도 걸어도 첩첩 산중의 고개길... 이 길이 평화의 댐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다. 고개의 높이만도 800m을 넘는 굽이굽이의 경사길... 80년대 이 길을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군 병력이 동원 되었으며 얼마나 긴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지는 보지 않아도 눈에 선하다. 고개길을 오르며 더위를 조금이라도 피하기 위해 산그늘 밑으로 움직여 보지만 이미 중천에 떠 있는 햇살을 피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 차도 별로 다니지 않았다. 먼저 앞서가는 동료도 뒤쳐진 동료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이번 200km에 참가한 인원이 총 42명인 관계로 긴 거리에 산재하여 달리다보니 모두가 흩어지기 마련인 때문이다. 오로지 혼자서

가야한다. 가끔은 뒷다리와 종아리에 통증이 느껴지지만 그 통증 사이로 묻어나는 야릇한 쾌감... 힘들어도 자꾸만 빠지는 울트라 의 묘미... 이미 나는 스스로 중독자라고 생각한다. 그간 길고 짧은 울트라 대회에서 발바닥의 물집은 항상 겪는 일이었고 또 포기하는 얼마나 많이 하였던가? 어떤 때는 심한 땀띠로 포기하기도 하였고 어떤 때는 지쳐서 어떤 때는 부상으로 말이다. 아직 80km에도 이르지 못하였는데 몸은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다. 드디어 고개정상 해산령 터널이 나왔다. 터널 길이만 2km다. 터널로 들어서는 순간 저 반대편 입구가 조그만 점으로 빛을 발하여 눈에 들어온다. 가끔은 굴속을 지나가는 자동차의 굉음이 귓전을 울린다. 지금부터는 올라온 것만큼 내려가야 한다. 오르막은 좀처럼 뛰기가 싶지 않기에 어쩔 수 없이 걷는 경우가 많지만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내리막길은 무조건 뛰어야 한다. 굽이굽이 돌아가는 강원도 고개길 아무리 내려가도 끝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안간힘을 다하여 달려간다. 평화의 댐 입구 제안 터널을 지나 평화의 댐에 도착을 하였다. 댐 위를 지나가면서 상류를 보니 지금까지 지나온 의암댐 춘천댐과는 차원이 다르다. 댐 상류에 전혀 물이 간혀 있지가 않다. 바닥이 보이는 저 아래의 평화의 댐... 산을 자르고 대형 구조물의 댐을 설치하고 도로를 만들고 온갖 인공적인 조형물로 단장을 하였지만 산세와 어울려 전혀 평화롭지를 못하다고 느끼는 것은 나만의 감정일까? 평화의 댐 표지판아래 준비된 간단한 컵라면과 수박화채로 요기를 채운 후 다시금 가방을 둘러메고 양다리에 힘을 주어본다. 평화의 댐에서의 많은 생각을 뒤로 한 채 뛰다보니 또다시 곧바로 고개가 시작된다. 강원도 감자바위 산골이라고는 하지만 산길의 진수를 제대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별로 큰 고개

가 아니라 쉽게 넘었다. 계절이 농사철인 만큼 논에 물을 대기 위하여 작은 수로로 힘찬 물이 흐른다. 먼저 가던 동료들이 잠시라도 피로를 풀기 위하여 신발을 벗고 무릎까지 물에 담그고 피로를 풀고 있었다. 나도 같이 잠시 동참 발을 물에 담그니 흐르는 물의 촉감과 시원함이 온몸에 베어 올라온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102km 제2체크 포인트가 나온다. 낮에 뜨거웠던 열기도 점점 그 열기를 덜하여 간다. 작년 이맘때 100km 체크포인트를 시간 내에 들어가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던 기억이 눈에 선하다. 있는 힘을 다 하여 간신히 100km 지점을 통과하는데 체크포인트가 보이지 않았다. 102km로 옮겨놓은 체크포인트... 그나마도 시간 체크는 하지 않는다고 하였었다. 발바닥에 잡힌 물집을 손질하고 감자탕으로 저녁을 먹고 피로에 지쳐서 잠시 눈을 붙이다 너무 많이 자고 난 나머지 시간을 놓쳐버린 곳이 바로 여기였다. 올해는 작년과 같은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 다행히 발에 물집도 생기지 않았다. 바꿈 터인 이곳에서 신발도 옷도 양말도 고쳐 신고 떠나는 것이 보통 상례이다. 하지만 그럴 시간이 별로 없다. 가능하면 해가 떨어지기 전에 다음 고개를 넘어 멀리 가 있어야 한다. 가방에 들어있는 우의 바람막이 등을 내려놓고 가벼이 급히 서둘러본다. 양구에 도착하기 전 마지막 고개



밑에 다다랐다. 졸음이 몰려오기 시작한다. 아무래도 잠시 눈을 붙이고 가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큰 도로 옆 샛길을 찾아 잠시 눈을 붙여본다. 잠결에도 팔 다리 사이를 열심히 개미들의 오르내림이 느껴진다. 약 20분가량 눈을 붙였다. 내가 잠시 잠든 사이 많은 동료들이 걸을 스쳐 지나 갔음을 짐작으로 느낄 수 있었다. 이제 이 고개만 지나면 양구다. 부지런히 다리를 움직여 본다. 같이 가던 동료로부터 전화가 왔다. 약 2-3km 앞서감을 알 수 있었다. 고개를 다 내려와 갈 즈음 앞서가던 여러 명의 무리들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 가까운 공사관의 합판을 한 장씩 챙겨서 다리 밑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추정하건데 아마도 단체로 다리

밑에서 휴식을 취하려는 것 같았다.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출발한지 약 18시간이 경과하는 현 지점이 120km가까이 왔으니 현 상태로는 성공이다. 간단하게 요기를 하기 위하여 가게에 들려본다. 야외 식탁에서 찰떡이랑 음료수 병과류 등을 먹고는 다시 일어선다. 약 1km 정도 갔을 때 땀이 흐르기에 머리띠를 찾으니 보이지 않았다. 생각해 보니 조금 전 그가게에 두고 온 것이다. 그냥 가는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었다. 양구에 도착하니 이미 밤은 시작 되었다. 잃어버린 머리띠 대신 손수건을 구입하여 머리에 둘러본다. 가까운 분식점에 들러 김밥을 시켰다. 까칠한 김밥이 목이 메여 잘 넘어가지는 않는다. 나의 이상한 물골을 보고 옆의 손님들이 말을 걸어온다. 나도 간단하게 상황 설명을 한다. 모두들 200km라는 용어에, 춘천서 약 125km를 쉬지 않고 뛰어왔다는 사실에 다소 놀라는 표정들이다. 자 다시금 힘을 내보자. 식당을 나와 힘껏 발길을 떼어본다. 금방 양구 시내를 벗어났다. 작년 여기서 소양호로 가는 길목 130km지점에서 피로에 지쳐서 시간에 지쳐서 포기 하였던 곳이다. 경사가 급하지는 않지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이어지는 한가한 도로와 간간히 만나는 시골집의 정경이 마냥 정겹게 느껴지는 것은 아직 힘이 남아 있음이리라고 생각을 해본다. 한참을 가다보니 먼저 가던 동료가 버스 정류장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다. 나도 같이 옆에서 눈을 붙여본다. 경험상으로 졸음이 올 경우 참고 견디는 것보다 잠시라도 눈을 붙이고 다시 출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임을 알고 있다. 또다시 약 20분의 휴식을 취한 후 출발하여 가다보니 금방 산길로 접어들었다. 가로등이 유난히 밝은 한적한 시골을 지나자 한밤중 산길로 접어들었고 달빛에 넘실되는 넓은 호수가 나타났다. 소양호였다. 소양강댐에 막힌 물결은 멀

리 산중턱에 물을 가득었고 산중턱 등고선 따라 굽이굽이 돌아가는 옛 국도는 새로 난 고속도로에 밀려 한적하기 그지없었다. 소쩍새만 슬피 우는 어둡고 적막한 산길을 몇 굽이돌고 돌았다. 갑자기 피로가 또다시 몰려오기 시작하였다. 그냥 도로 곁에 주저앉아서 잠을 청하여 본다. 그러하기를 몇 번을 반복하다보니 바로아래 불빛이 눈에 들어온다. 150km 체크 포인트였다. 들어서기가 무섭게 먼저 와서 잠든 동료들 옆에 누워 본다. 금새 잠이 들었나 싶었는데 누군가 잠을 깨운다. 체크포인트를 지키고 있는 자원봉사분이셨다. 약 30분 잠을 잔 것 같다. 떨어지지 않는 눈을 비비고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주시는 황태해장국을 먹는 등 마는 등 자리를 박차고 일어선다. 이틀째 밝아오는 새벽녘의 여명이 지나긴 소양호를 서서히 물들여 오고 있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강원도 산길... 새벽은 밝아오는데 다리는 이미 풀려 있었다. 좁은 길을 가다 큰 길로 가기도하고 언덕을 넘기도 여러번... 졸리면 잠시 눈을 붙이고 회복이 되면 다시 뛰기를 여러번 반복한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해는 서서히 중천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마지막 고개 밑에 다다랐다. 166km 지점의 배후령고개 시작이다. 고개 정상 오봉산 휴게소까지가 171km이므로 꼬박 5km의 고개 길을 걸어 올라가야한다. 아무런 생각 없이 걸어 오르기를 1시간 30여분 드디어 배후령 정상 오봉산 휴게소에 도착을 하였다. 라면과 음료수로 간단한 식사를 마친 후 자리를 털고 일어선다. 아침 10시경이라 많은 등산객들이 오봉산을 오르기 위하여 각지에서 타고 온 차량에서 내려 준비하는 모습이 보였다. 산을 내려가기 시작한다. 또다시 힘을 내어 힘차게 뛰어간다. 내리막은 금방 내려갔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태양이 서서히 이글그리기 시작한다. 도로 옆 농로길이 보인다. 아무런 생각

없이 가방을 벗어던지고 나무 그늘을 찾아 단잠을 청한다. 약 20분가량 잠을 잔 것 같다. 피로가 확 풀리는 느낌이다. 경사가 그다지 급하지 않은 내리막을 열심히 뛰어 내려갔다. 앞에 가는 사람도 뒤에 따라오는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조금만 더 가면 다섯 개 댐

중의 하나인 소양강댐이다. 댐 입구 유원지를 지나 약 2km를 더 올라갔다. 소양강댐의 웅대함이 한눈에 들어온다. 밤새도록 저 댐에 갇혀 있던 소양호를 따라 몇 굽이를 돌고 돌았던가. 주변 경관과 산새를 감상하며 댐 정상에 오르니 같이 출발하였다가 부상으로 그만둔 동료가 음료수와 간식을 건네준다. 여기가 184km지점으로 앞으로 약 16km만 더 가면 된다. 포기한 동료로부터 건네받는 도움에 감사함과 미안함이 같이 느껴졌다. 작년 이맘때 130km에서 포기한 후 마이크로 버스에 잠들었다 깨어난 이곳 소양강댐... 시간만 더 있다면 한참이나 머물고 싶은 곳이다. 회상에 잠기며 소양강댐을 내려오기 시작하였다. 갑자기 오른쪽 새끼발가락에 통증이 왔다. 물집이 잡힌 것이다. 벤치에 앉아 그간의 경험으로 간단히 처치를 한 후 가는 길을 서둘러본다. 이제 소양강 하류의 지류를 따라 조금만 더 가면 된다. 길게 난 강둑 옆길을 따라 달려간다. 작열하는 태양은 이미 중천에 떠올랐다. 자원봉사원이 아이스크림을 건네준다. 춘천으로 들어가는 소양강을 따라 굽이쳐 흐르는 강 위로 수많은 다리가 춘천이 가까웠음을 알려준다. 드디어 춘천시를 들어왔다. 대회 측 주로감독관이 차량으로 칸보이 한다. 불과 3-4km 밖에 남지 않았다. 이제는 걸어도 충분히 제한 시간 내 들어 갈 수 있다는 안도감과 마중 나온 동료의 고마움을 생각하여 같이 걷기 시작하였다.



▲ 평화의 댐에서

소양2교를 지나자 춘천시의 명물인 인어상이 반겨 준다. 충분히 뛰어도 되지만 일부러 여유를 부리며 걷기로 마음먹었다. 저 멀리 춘천종합운동장이 시야에 들어온다. 드디어 도착이다. 내가 마지막 주자다. 42명이 출발하여 19명이 완주한 대회... 힘들기에 스스로 선택하여 도전한 대회... 적당한 근육의 고통 속에 느끼는 희열... 극도의 피로 속에 나에게 대한 재발견... 어제가 있었기에 오늘이 있다는 사실과 내일의 기약을 위한 확신감으로 힘차게 달려온 200km, 며칠 전에는 출발선이었고 지금은 도착 지점인 피니쉬 라인을 힘차게 밟는다. 모두가 반겨준다. 고통이 있었기에 즐거움이 있는 법이다. 같이 출발하여 같이 들어오지 못한 동료에게 한없이 미안함이 앞선다. 그들도 있는 힘껏 달렸고 달린 거리만큼은 완주를 한 사람들이다. 단지 피니쉬 라인만 밟지 않았을 뿐이다. 호반의 도시 춘천 깊은 골짜기 험한 산과 강을 이용하여 많은 인공 댐을 만들었고 그로 인하여 갇혀 있는 대형 호수들... 참으로 인간의 힘은 대단한 것이다. 그런 강원도 험로를 나의 두 다리로 뛰어서 제한 시간 내 돌아보았다는 사실에 스스로 감사할 뿐이다. 그리고 또 느꼈다. 이 산하 이 조국 이 동포의 아름다움과 한없는 인정을... 참고로 40시간제한 시간에 39시간 39분 40초에 나는 피니쉬 라인을 밟았다.

(원고 접수일 2008년 6월 18일)